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이소연**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간 구조관계를 탐색하였고, 이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2012~2015년도 자료조사에 참여한 1,597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그 어머니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은 초등학교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는 U모양의 비선형모형으로 나타났고,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에서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둘째, 구조모형분석 결과,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성장요인 모두에 그리고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통합, 동화, 주변화 양상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모형에서 여학생의 초기치가 그리고 조건모형에서 여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변화와 이와 관련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청소년의 성차를 탐색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자아존중감, 내재화문제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leesy@sm.ac.kr

I. 서 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뿐 아니라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의 자녀를 포함한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전자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이렇게 가족을 형성할 때부터 이중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 문화권 모두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각의 문화와 민족의 특성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처리·통합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화적응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Lynch, 1992).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 탐색과 형성이라는 주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정체성에 더해 인종/민족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문화적응을 경험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업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가 대부분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청소년기 문제가 자아정체성 등과 같은 심리적 발달변인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문화적응과정에서 비주류문화와 주류문화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연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노충래, 2000; 박순희, 2009; 이현주, 강현아, 2011). 문화정체성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Berry(1990)의 문화적응유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주변인, 동화, 분리, 통합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문화적응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 유형 중 두 가지 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통합유형이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Kosic, Manetti & Sam, 2005). 이와 유사한 개념인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대한민국에서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와 비주류문화인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노충래, 홍진주, 2006)를 의미하는 것으로 Berry의 이론처럼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또래관계,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승경, 양계민, 2012; 신윤진, 윤창영,

2010; 윤향희, 2014). 이처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혹은 더 나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경험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다(Doyle & Kao, 2007; Phinney, 2005). 또한, 청소년들은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어야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기회를 갖기 시작하며 이것이 인종정체감 획득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French, Seidman, Allen & Aber, 2006). 이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청소년의 발달을 따라 변화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나 개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파악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외의 청소년들처럼 발달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발달단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선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들의 문화유산 학습을 격려하고 문화유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인종적/문화적 사회화(ethnic/cultural socialization)를 강조할수록 자녀의 인종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Seaton, Yip, Morgan-Lopez & Sellers, 2012; Umana-Taylor & Guimond, 2010). 부모의 이러한 문화적 사회화에 대한 강조는 교사와 또래의 차별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고 부모가 문화적 사회화를 강조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12세가 된 청소년의 학교성적이 낮아지지 않는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Wang & Huguley, 2012). 또한 자녀가 모국어 및 모국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어머니가 높게 가질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김순규, 2012).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수준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와 자녀의 문화적응의 차이는 부모가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곽금주, 2008; Kim, Han & McCubbin, 2007).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부정적 스트레스 전략을 덜 사용하기도 하였다(강유임, 김병석, 2013).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의 이중문화요인이 청소년 자녀의 이중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소년기는 부모 보다는 또래나 다른 사회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변인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가진 이중문화요인도 자신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와의 애착보다는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전략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강유임, 김병석, 2013) 보고한 연구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소수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화와 잘 연계되어 있고 인종적 자아정체감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지각하거나 주류문화에 대한 유능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가진 경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로 인해 차별에 의한 악영향을 적게 받았다(Brown & Chu, 2012; Galliher, Jones & Dahl, 2011). 더욱이 강한 인종정체감을 획득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행복하며 걱정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andara, Gaylord-Harden, Richards & Ragsdale, 2009; Rivas-Drake et al.,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은 자아정체감,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은경, 2016; 송순택, 2014; Vinokurov, Trickett & Birman, 2002).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김승경, 양계민, 2012)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한민국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감정적 개입 현상을 측정하는 국가정체성을 이중문화요인으로 상정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부모의 이중문화요인의 경우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경험과 태도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과 상응한다 판단된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을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의 이중문화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는 외국인 어머니의 자료만이 포함되어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만이 연구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태도의 형성과정에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이중문화 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 선행연구가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

중문화환경, 즉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한 관심,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양계민, 2012).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부모의 외국인 여부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기술된 연구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에 측정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즉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문화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때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만 측정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예측변인들 때문에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첫 시점의 변인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변인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차이가 보고되었다. 일례로 우울증상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여중생의 우울과 불안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되었다(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가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송순택, 2014). 나바호 인디언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인종/문화정체감을 보였고(Gallagher, Jones & Dahl, 2011) 문화적응유형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 여자의 경우 통합형이 많았던 반면 남자의 경우는 동화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이현주, 강현아, 2011).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어머니만이 참여하였고, 어머니의 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동일시나 모방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자녀에 대한 개입방법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백미영, 이소연, 2017). 이를 기초로 하였을 때 본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관련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4개년 간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양상과 이중문화수용태도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개인요인의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이러한 변화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의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에는 성차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2~5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MAPS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7년까지 7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종단패널 연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변인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5차 연도 이중문화수용태도, 2차 연도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2차 연도 어머니의 이중문

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 그리고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차 연도 기준 총 1,597명의 청소년과 그 어머니로, 남학생 721명(45.1%), 여학생 742명(46.5%)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134명(8.4%)은 성별을 보고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 498명(30.6%), 필리핀 373명(23%), 조선족 282명(17.4%), 중국·한족 109명(6.7%), 그 외 222명(13.6%), 무응답 141명(8.7%)이었다.

2. 측정도구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척도는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혹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처럼 청소년이 한국과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길 희망하는 정도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고 수용함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Cronbach's α 는 2차 .73, 3차 .73, 4차 .73, 5차 .74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Hovey와 King의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의 척도를 재 수정한 홍진주(2004)의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척도는 사회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내적합치도는 .78로 산출되었다.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성한기(2001)가 제작한 사회정체화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척도는 한국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개입 현상을 알아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정체성 4문항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중(1996)이 번안하고 이소래(1997)가 수정해서 사용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로 산출되었다.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은 Barry(2001)가 개발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를 노하나(2007)가 수정한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통합(5문항), 동화(8문항), 분리(6문항), 주변화(9문항)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유형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통합 .67, 동화 .83, 분리 .71, 주변화 .91로 산출되었다.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위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박난숙과 오경자(1992)가 사용한 자아개념검사 척도의 자아존중 하위영역의 4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자아존중감 4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4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를 수정한 척도를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우울 10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우울 .91, 사회적 위축 .91로 나타났다.

3. 주요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 분석 시 제안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추정(Brown, 2015)을 사용할 수 있는 M-plus 8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시점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오차를 통제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인차의 유의성과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Bollen & Curran, 2006).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파악하였다. 이때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무조건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연구문제에 적합한 조건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이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존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과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과 두 번째 단계에서 파악된 변인간의 조건모형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다집단비교를 수행하였다. 이 때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장요인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해 성차를 검증하였고, 조건적인 모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표준화 경로계수간 동일성 제약을 가하는 대신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Mann, Rutstein & Hancock, 2009).

$$|Z_{diff}| = \frac{b_1 - b_2}{\sqrt{SE_{b_1}^2 + SE_{b_2}^2}}$$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 CFI, TL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χ^2 는 표본수에 민감하여 쉽게 가각되는 경향이 있고,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양호도를

판별하는 적합도 지수이다. TLI와 CFI는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이상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 2015).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평균은 2차 29.02, 3차 29.53로 다소 증가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4차 29.29, 5차 29.10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3미만으로 나타나 정상 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1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	<i>N</i>	<i>M</i>	<i>SD</i>	왜도	첨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2차	1463	29.02	4.01	.08	.7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3차	1407	29.53	3.87	.21	.5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4차	1345	29.29	3.84	.15	.6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5차	1312	29.10	3.85	.24	.3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1463	14.48	3.76	1.35	2.2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1463	10.83	2.60	-.35	.25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1407	19.96	5.79	.26	-.15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1407	17.25	2.79	-.30	.64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1407	24.37	5.16	.07	.39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1407	17.65	3.71	-.29	.49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1407	18.91	6.27	.17	-.6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5차	1312	12.71	2.12	-.10	-.2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5차	1312	16.95	5.36	.47	-.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위축5차	1312	11.70	3.68	-.20	-.5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차에서 5차 연도까지의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2차 연도 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ps<.001$),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ps<.001$) 보인 반면,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차와 4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의 통합과 유의한 정적상관을($ps<.01$) 그리고 2차와 3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주변화와 유의한 부적상관을($ps<.05$) 나타냈다. 5차 연도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통합과 유의한 부적상관을($ps<.05$),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분리, 주변화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ps<.05$) 나타냈다.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통합, 동화와 유의한 정적상관을($ps<.05$),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분리, 주변화 유형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ps<.01$) 보였다.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38***	1												
3	.30***	.37***	1											
4	.31***	.37***	.46***	1										
5	-.19***	-.15***	-.14***	-.14***	1									
6	.43***	.17***	.17***	.13***	-.01	1								
7	.01	-.02	-.04	-.04	.19***	.01	1							
8	.07**	.05	.08**	.05	-.08**	.03	-.28***	1						
9	-.03	-.04	.01	-.03	-.05	.01	-.23***	.53***	1					
10	-.01	-.03	-.04	-.03	.12***	-.01	.37***	-.27***	-.46***	1				
11	-.09**	-.06*	-.05	-.04	.20***	-.01	.48***	-.36***	-.20***	.31***	1			
12	.24***	.27***	.29***	.47***	-.19***	.14***	-.08**	.10***	.06*	-.09**	-.13***	1		
13	-.13***	-.19***	-.21***	-.29***	.18***	-.08**	.11***	-.06*	-.04	.05	.11***	-.51***	1	
14	-.12***	-.09***	-.11***	-.18***	.08**	-.10***	.08**	-.06*	-.05	.06*	.10***	-.37***	-.47***	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청소년 이 중문화수용2차, 2: 이 중문화수용3차, 3: 이 중문화수용4차, 4: 이 중문화수용5차, 5: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6: 청소년 국가정체성2차, 7: 모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8: 모 통합, 9: 모 동화, 10: 모 분리, 11: 모 주변화, 12: 청소년 자이즌응감5차, 13: 청소년 우울5차, 14: 청소년 사회적 위축5차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잠재성장모형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개 시점에서 측정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간 모형적합도를 고려한 결과, 비선형모형의 모형적합도가 CFI .994, TLI .967, RMSEA .057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 궤적은 비선형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CI)
무변화	56,890***	8	.944	.958	.064(.049-.080)
선형	28,207***	5	.973	.968	.056(.037-.077)
비선형	5.835 ^c	1	.994	.967	.057(.020-.105)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intercept), 변화율(linear slope), 이차변화율(quadratic slope)의 평균과 분산, 이들 간의 상관은 표 4와 같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평균은 29.058($p < .001$), 변화율 평균은 .507($p < .001$)로 이는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의 측정시점마다 이중문화수용태도 평균이 .507만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차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이차변화율이 -.169($p < .001$)로 나타나 어느 시점부터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둔화 혹은 감소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경우, 초기치와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였지만 이차변화율에서는 개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 초기치와 일차변화율($r = -.591$, $p < .001$), 일차변화율과 이차변화율($r = -.903$, $p < .001$) 간 유의한 부적상관이, 초기치와 이차변화율($r = .499$, $p < .01$)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첫 시점의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증가율이 완만하지만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다시 감소할 때는 변화율이 더 급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추정계수

	초기치	변화율	이차변화율
평균(분산)	29.058 ^{***} (8.70 ^{***})	.507 ^{***} (4.08 ³)	-.169 ^{***} (.256)
상관	초기치↔일차변화율 = -.591 ^{***}		
	일차변화율↔이차변화율 = -.903 ^{***}		
	초기치↔이차변화율 = .499 ^{**}		

* $p < .05$, ** $p < .01$, *** $p < .001$

3.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및 심리정서적응의 구조모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 2차 연도에 청소년의 이중문화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2차 연도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 그리고 5차 연도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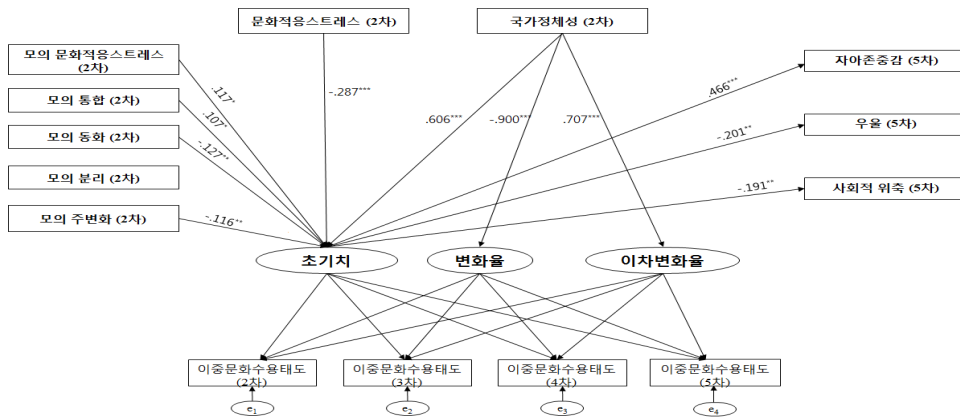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

주.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가시성을 고려하여 유의한 경로만 표시함.

** $p < .01$, *** $p < .001$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14)=29.736$, $p<.01$, CFI=.993, TLI=.966, RMSEA=.028(90% CI [.014, .042])로 나타나 이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추정계수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2차 연도의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287$, $p<.001$)와 국가정체성($\beta=.606$, $p<.001$),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117$, $p<.01$)와 통합($\beta=.107$, $p<.05$), 동화($\beta=-.127$, $p<.01$), 주변화($\beta=-.116$, $p<.01$)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국가정체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더 높았고,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 영역의 점수가 높고 동화와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더 높았다. 또한 2차 연도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일차변화율($\beta=-.900$, $p<.001$)과 이차변화율($\beta=.70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높은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증가율이 완만하지만 감소할 때는 변화율이 더 급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과 어머니의 모든 이중문화변인은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위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성장요인 중 초기치만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beta=.466$, $p<.001$), 우울($\beta=-.201$, $p<.001$), 사회적 위축($\beta=-.19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중학교 2학년 때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추정계수 중 1 이상인 계수가 2개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과인데다가(Deegan, 1978) 데이터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추정계수

	<i>B</i>	<i>SE</i>	β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206***	.026	-.287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41	.035	.132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6	.011	-.075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622***	.036	.606

	<i>B</i>	<i>SE</i>	<i>β</i>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403***	.049	-.900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87***	.016	.70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54**	.019	.11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35	.026	-.176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6	.008	.101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102*	.041	.107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12	.057	.028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5	.018	-.041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66**	.023	-.127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09	.032	.039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3	.010	-.051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09	.030	-.013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31	.041	-.100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7	.013	.081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49**	.018	-.116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40	.025	.217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8	.008	-.149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자아존중감(5차)	.043	.127	.075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우울(5차)	.366	.408	.253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사회적위축(5차)	-.114	.232	-.115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자아존중감(5차)	-.884	.862	-1.081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우울(5차)	-2.024	3.610	-.977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사회적위축(5차)	1.347	1.783	.94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자아존중감(5차)	-.069	.099	-.18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우울(5차)	-.118	.336	-.12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사회적위축(5차)	.129	.185	.203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자아존중감(5차)	.028	.148	.037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우울(5차)	.070	.302	.036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사회적위축(5차)	-.035	.228	-.026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자아존중감(5차)	.047	.083	.115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우울(5차)	.016	.178	.015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사회적위축(5차)	-.064	.131	-.089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자아존중감(5차)	-.081	.124	-.142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우울(5차)	-.184	.345	-.127

	<i>B</i>	<i>SE</i>	<i>β</i>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사회적위축(5차)	.118	.210	.119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자아존중감(5차)	.062	.105	.183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우울(5차)	.237	.375	.277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사회적위축(5차)	-.096	.200	-.163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자아존중감(5차)	.371***	.050	.466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자아존중감(5차)	-.682	2.054	-.373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자아존중감(5차)	5.581	4.078	.837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우울(5차)	-.406**	.135	-.201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우울(5차)	-5.747	8.193	-1.24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우울(5차)	-2.377	4.555	-.141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사회적위축(5차)	-.265**	.096	-.191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사회적위축(5차)	2.134	4.287	.67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사회적위축(5차)	-5.258	4.782	-.456

* $p < .05$, ** $p < .01$, *** $p < .001$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잠재성장모형과 조건모형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CFI .996, TLI .973, RMSEA .051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의 평균은 28.761($p < .001$), 일차변화율 평균은 .593($p < .01$), 이차변화율의 평균은 -.197($p < .01$)로,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의 평균은 29.331($p < .001$), 일차변화율 평균은 .401($p < .05$), 이차변화율의 평균은 -.131($p < .05$)로 나타났다. 분산의 경우, 남학생은 초기치($p < .01$)의 분산만이 여학생은 초기치($p < .001$)와 일차변화율($p < .05$)이 유의하여 성장요인 간 개인차는 여학생에게서 더 확인되었다.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의 초기치, 일차변화율, 이차변화율 각각에 성별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비교한 결과, 초기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우에만 모형적합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FI .988, TLI .952, RMSEA .069).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초기치만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건적 잠재성장모형의 추정계수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CFI .996, TLI .981, RMSEA .020으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추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다소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b=-.156, p<.001$), 국가정체성($b=.603, p<.001$),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b=.062, p<.05$), 통합($b=.127, p<.05$), 동화($b=-.080, p<.05$)가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b=-.266, p<.001$), 국가정체성($b=.640, p<.001$), 어머니의 주변화($b=-.054, p<.05$)만이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남학생의 국가정체성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일차변화율($b=-.360, p<.001, b=-.108, p<.01$)과 이차변화율($b=.076, p<.01, b=.033,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국가정체성만이 일차변화율($b=-.444, p<.001$)과 이차변화율($b=.09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성장요인이 5차 연도 심리정서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만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그리고 우울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의 추정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 간 추정계수($Z=2.10,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여학생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2차 연도의 낮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년간 측정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이라는 예측변인과 함께 이후의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탐

색하기 위해 변인들 간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 4개 시점에서 측정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은 비선형 모형으로 초등학교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는 종모양(\cap)의 곡선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나 문화적응에 대한 국내 종단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논의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령기 이행의 시점으로부터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정보다는 또래나 학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또래나 학교에서 수용되고 통용되는 문화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업이나 진로에 부모와 자녀 모두 관심을 더 가져(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외국인 부모의 문화에 노출될 시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필요성 또한 강조되지 않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경우 개인차가 확인되었으나 이차변화율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에게서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나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2, 3학년이 지나야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기회를 갖기 시작하며(French et al., 2006),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의 향상, 정체성에 대한 관심 증가가 나타나는 중후기 청소년기에 부모의 문화적 사회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Wang & Huguley, 2012).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중학생 이후까지 추적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연관되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 궤적에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통합, 동화, 주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가정체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국가정

체성의 경우 일차변화율과 이차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어머니가 동화와 주변화 양상을 적게 보일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높고 어머니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 양상을 높게 보일수록 2차 연도에 측정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차 연도에 측정된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완만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둔화되는 변화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만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을수록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선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에 영향을 받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성장요인 중 초기치의 중요성이 본 연구결과에서 대두된다. 물론 본 연구는 같은 시점에 측정된 이중문화요인을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예측변인으로 상정하여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여러 이중문화요인이 첫 시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첫 시점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수준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는 부모나 아동이 문화적응유형 중 분리, 주변화 보다는 통합과 동화 유형을 많이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Berry, Kim, Minde & Mok, 1987), 통합형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주변화형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으며(이현주, 강현아, 2011), 어머니의 문화적응수준이 자녀와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곽금주,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흥미로운 발견은 어머니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높은 초기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점이다.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 보면, 어머니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경우 주변화나 분리보다는 동화나 통합적인 문화적응유형을 추구하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자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덜 느끼도록 지원하고 어머니의 문화적 배경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문화관

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연구와(오옥선, 김성봉, 2012)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이 5차 연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중문화요인의 초기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쳤다는(김은경, 2016)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보다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통합적 문화적응에 상응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유사한 문화적응이 통합형이고 이것이 정체성 모델에 있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단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통합형의 청소년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주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Sue & Sue, 2011). 물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시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의 평균들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초기치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점과 관련되었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높은 초기치 뿐 아니라 변화궤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국가정체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긍정적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가정환경적 요인에 더해 개인내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시점므로,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의 낙관성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 어머니 변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예림, 2014). 청소년의 다른 이중문화요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비해 국가정체성이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국가정체성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점과(양계민 외, 2016)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차 연도의 국가정

체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만을 모형에 투입하였지만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국가정체성의 영향이 4개 시점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문화정체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체성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영향은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국가에 대한 강한 감정적 유대감인 국가정체성이 본 연구대상자인 한국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는데 본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대다수가 일본, 필리핀, 조선족, 중국-한족 출신이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차년도 동안 77~88%,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고 보고한 학생은 1.5~3.7%이었다(양계민 외, 2016). 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외모가 달라 또래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경험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심각한 정체감의 혼란을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의 사례와(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배경, 그와 관련된 경험 등이 다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르게 특징적이어서 국가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것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셋째, 잠재성장 모형과 구조모형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여학생의 초기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을 뿐 아니라 4개 시점 내내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통합형을 더 많이 보였고(이현주, 강현아, 2011)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동일한 변인은 아니지만 비(非)다문화 가정 여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초기치가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수경, 201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기의 인지적, 사회적 역량의 발달이 인종/문화정체감의 발달이나 이와 연관된 경험의 탐색과 관련되고(Wang & Huguley, 2012)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지적, 사회적 역량의 발달 시기가 다른 점(허혜경, 김혜수, 2015)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조건모형에서도 남학생의 경로와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관계중심적이고 정서중심적인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과(Rose & Rudolph, 2006) 관련될 것으로 유추된다. 즉, 여학생이 관계에 더 초점을

두어 친구관계 스트레스나 사회관계망에 대한 스트레스에 더 자주 직면하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다문화 가정 여학생이 더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는 다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모형에서 파악된 경로의 성차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자신의 이중문화요인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이 높고 동화가 낮을수록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어머니의 주변화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기에는 관련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제한적이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각되는 정도나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이 보고된 점과(백미영, 이소연, 2017; 임인섭, 2012) 관련될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모형의 성차에 대한 검증이 탐색적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이해와 개입을 시도할 때 청소년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의 구조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뿐 아니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외국인 부모의 문화에 대한 교육과 접촉기회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적, 사회적, 교육적 여건 마련의 중요성, 특히 이러한 경험이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응을 돕는 것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할 제한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청소년과 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변인을 함께 탐색할 수 없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

화수용태도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그 양상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가 외국인인 면서 어머니가 한국인인 가족의 형태는 어머니가 외국인인면서 아버지가 한국인인 가족의 형태와 다른 양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김근영 외, 2009) 다양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다양한데다가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청소년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만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문화요인의 변화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이중문화요인의 초기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청소년과 어머니의 어떤 이중문화요인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임,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1), 19-42.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26.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2.
-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09-128.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은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난숙, 오경자 (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235-248.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백미영, 이소연 (2017). 모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3), 5-18.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송순택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발현 시기와 연령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93-114.
- 신윤진, 윤창영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2), 1-14.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연구보고 16-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미진, 이동훈, 고희월, 김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오옥선, 김성봉 (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235-260.
- 윤향희 (2014).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우관계와 이중문화 적응,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5(1), 209-247.
- 이수경 (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종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27-48.
- 이현주, 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 임인섭 (2012). **중학생의 부모양육행동 지각, 정서능력,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차 및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파주: 양서원.
- 최예림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혜경, 김혜수 (2015). **청년심리와 교육**. 서울: 학지사.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Brislin, R. (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erry, J. W., Phinney, J. S., Sam, L. D.,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e equation perspectiv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rown, C. S., & Chu, H. (2012).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academic outcomes of Mexican immigrant children: The importance of school context. *Child development*, 83(5), 1477-1485.
- Brown, T. A. (201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Deegan, J. (1978). On the occurrence of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greater than on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8, 873-888.
- Doyle, J. M., & Kao, G. (2007). Are racial identities of multiracials stable? Changing self-identification among single and multiple race individual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4), 405-423.
- French, S. E., Seidman, E., Allen, L., & Aber, J. L. (2006). Th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1), 1-10.
- Galliher, R. V., Jones, M. D., & Dahl, A. (2011).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ethnic identity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psychosocial

- adjustment of Navajo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7(2), 509-526.
- Kim, E., Han, G., & McCubbin, M. A. (2007). Korean American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accultura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amily & Community Health*, 30, S33-S45.
- Kosic, A., Manetti, L., & Sam, D. (2005). The role of majority attitudes towards out-group in the perception of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273-288.
- Lynch, E. W. (1992). From culture shock to cultural learning. In E. W. Lynch, & M. J. Hanson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p. 19-33). Baltimore, Maryland: Paul H Brookes.
- Mandara, J., Gaylord-Harden, N. K., Richards, M. H., & Ragsdale, B. L. (2009). The effects of changes in racial identity and self-esteem on changes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80(6), 1660-1675.
- Mann, H. M., Rutstein, D. W., & Hancock, G. R. (2009). The potential for differential findings among invariance testing strategies for multisample measured variable path model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9, 603-612.
- Phinney, J. S. (2005). Ethnic identity in late modern times: A response to Rattansi and Phoenix. *Identity*, 5(2), 187-194.
- Rivas-Drake, D., Seaton, E. K., Markstrom, C., Quintana, S., Syed, M., Lee, R. M. et al. (2014). Ethnic and racial identity in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cademic, and health outcomes. *Child Development*, 85(1), 40-57.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98.
- Seaton, E. K., Yip, T., Morgan-Lopez, A., & Sellers, R. M. (2012). Racial

- discrimination and racial socialization as predictors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racial identity development us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8(2), 448-458.
- Sue, D. W., & Sue, D. (2011). 유색인의 인종적/문화적 정체성 발달. **다문화상담** (pp. 309-344).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공역.). 서울: 학지사.
- Umaña-Taylor, A. J., & Guimond, A. B. (2010).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predicting Latino adolescents' ethnic ident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6, 636-650.
- Vinokurov, A., Trickett, E. J., & Birman, D. (2002). Acculturative hassles and immigrant adolescents: A life-domain assessment for Soviet Jewish refuge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425-445.
- Wang, M. T., & Huguley, J. P. (2012). Parental racial socialization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racial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succes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83(5), 1716-173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CA.

ABSTRACT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st multiethnic adolescents

Lee, So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st multiethnic adolescents. The subjects comprised 1,597 multiethnic students and their foreign-bor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Panel Study(MCAPS) from 2012 to 2015. The data were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ing using the M-plus program. Ou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multiethnic stud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changed in non-linear ways over the four years and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cepts and linear slope. Second, students' national identity at the first time point affected intercepts, linear, and quadratic slopes of the latent growth model.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as well as mothers' integration, assimilation, and marginalization tendency, assessed in 2012, influenced only the intercept of the latent growth model fo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dditionally, the intercepts significantly affected the high score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low scores of depression and anxiety, assessed in 2016. Third, girls' intercept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effect of girls' acculturative stress on the intercept was greater than that of boy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multiethnic adolescents, longitudinal chang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 acculturative stress, acculturation type, self esteem, internalizing behaviors

투고일: 2017. 12. 6, 심사일: 2018. 1. 29, 심사완료일: 2018. 2. 13

*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